



전주바이오산업원 개원식 27일 전주바이오산업원 3층 강당에서 전주바이오산업원 개원식이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쌀값 안정 '제2차 쌀 시장격리' 내달 중 추진

이원택 의원, 당정협의 통해 시장격리 결정 이끌어내

쌀값 안정을 위한 제2차 쌀 시장격리가 5월 중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27일 민주당과 정부가 제2차 쌀 시장격리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 잔여물량인 12.6만톤에 대해 5월 중 매입 공고를 통해 2차 시장격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으로 20년 350만7,000톤 대비 10.7% 증가한 수치로, 신곡 수요량 361만톤 대비 27만톤 초과 생산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1차 시장격리를 진행했지만, 정부의 시장격리 매입 방식이 최저가 입찰과 같은 역공매 방식으로 추진돼 결국 시장격리 물량 20만톤 중 5만5천톤이 유찰됐고, 이로 인해 시장에는 12.6만톤의 쌀이 과잉 공급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 결과 현재 산지 쌀값은 지난 4월 15일 기준 4만7,774원(20kg)으로 수확



기 평균 5만3,535(20kg)원 대비 10.8% 전년 동기 대비 5만5,730원(20kg) 대비 14.3%까지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금년 수확기 매입 여력 감소로 쌀값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0월 농식품부 국정감사 당시 21년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8.8~1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조속한 시장격리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고, 청와대 등에도 쌀 시장격리의 시급함을 전달해 지난 1월 1차 시장격리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서는 쌀값 안정을 위해 2차 시장격리 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쌀 시장격리 조속한 실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원택 의원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2차 쌀 시장격리 조치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더이상 농민들이 쌀값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농가보유 물량을 우선 매입하도록 하고, 양곡관리법 개정 등 쌀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농식품부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김제시가 최종 선정돼 김제시 여성농업인들이 관내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5월부터 검진 대상자(만 51세~70세 여성농업인)신청 접수를 받아 선정하고, 선정된 여성농업인들은 김제시 관내 검진기관에서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호상 기자

"행복한 삶 누릴 권리 있다"

민주 김관영 도지사 경선후보, 대기업 유치·가공식품 플랫폼 구축 등 공약 제시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 공약'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검토했다"며 "단순한 공약 제시가 아닌 꼭 실현시켜 전북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전북 청년들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기업 계열사 5개를 꼭 유치하겠다"면서 "청년의 미래를 우리가 자란 전북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편안한 경로당의 시설 보충과 운영비 개선, 공용 와이



파이를 설치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어르신들을 위한 폐CT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저는 무엇보다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전북의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거대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도에 정착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가정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장애인들의 당당한 홀로서기를 위한 재활 및 돌봄, 자활을 위

한 교육을 확대하겠다. 특히 기관 및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북도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군과 협의해 출산장려금 1000만 원 지원과 무상유아교육 및 보육, 온종일 돌봄교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외에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 체험거리를 줄 수 있도록 한국 잡월드를 유치하고, 시·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겠다"면서 "축구·야구·탁구·배드민턴 등 관련시설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호남 발전에 큰 역할 해달라"

호남유권자연합 김관영 지지 선언

정치개혁과 도덕성 회복 호남유권자연합(이하 호남유권자연합)은 지난 26일 김관영 경선후보를 전북도 도지사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호남유권자연합은 지난 4월 1일 11시부터 광주 소재 라마다르네상스 광주



호텔 샹그릴라에서 의장단 고문단 위원장단 국장단 등이 모여 지지 협력할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4월 4일부터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와 토론을 거쳐 28일 1차 지지 후보를 발표하고, 직접 해당 후보

의 캠프를 방문해 지지 선언 취지문을 전달했다. 26일 오후 4시 김관영 경선후보의 캠프를 방문한 호남유권자연합 이관현 상임의장(정치학박사)은 김관영 후보에게 "전북도지사에 당선되셔서 전북도를 넘어 호남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뒤, 지지 선언 취지문을 전달했다.

호남유권자연합은 지지 선언 취지문에서 "후보자 능력을 제의 지지 후보 기준으로 도덕성과 개혁적인 인물인 김관영 후보를 전북도지사로 선출할 수 있도록 본 연합은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농촌 직불금 미지급 사태 해결"

김수홍 의원, 서부내륙 고속도로 편입 농지 공익직불금 지급 주도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시 갑)은 서부내륙고속도로 편입 농지에 대한 공익직불금 미지급 사태가 각 관계기관의 업무 협약을 통해 해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익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미지급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 (관원기사 7면)

협약식에는 박건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장과 서부내륙고속도로(주) 정태화 대표이사, 오택립 익산시(장관)한대행과 피해농민을 대표해 김지호 이종성 씨가 참석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직불금 미지급 사태는 충남 부여에서 전북 익산 간 2단계 구간 사업을 추진하며, 편입 농지에 대한 보상 이전에 용도를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농민들은 자신의 농지가 전용되었다는 사실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직불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익산시농민회를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은 서부내륙고속도로 편입 농지에 대한 공익직불금 미지급 사태가 각 관계기관의 업무 협약을 통해 해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익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미지급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

중심으로 '서부내륙고속도로 직불금 미지급 대책위원회(대책위)'가 꾸려져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와 천막농성을 벌였다.

김수홍 의원은 "정실히 농사를 지었을 뿐인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관련 기관에 책임을 물었고, 이날 열린 협약식을 통해 피해액 전액을 경작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

도했다.

김수홍 의원은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상 실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늦게나마 보상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향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